

목포 시내버스 또 멈추나... 업체 대표 '사업 포기' 통보

운수업체 측 "누적 적자 감당하기 힘들어 7월부터 운행 중단하겠다" 시 "진의 파악 시간 필요...공영제 등 용역 앞당기고 방안 모색할 것"

목포시내버스 회사인 태원·유진운수 이한철 대표가 시내버스 사업포기 의사를 밝히면서 목포시내버스가 또 다시 멈춰설 위기에 놓였다. 16일 목포시와 태원·유진운수에 따르면 최근 이 대표가 목포시와 시의회에 "오는 6월까지 시내버스를 운행하고 사업을 접겠다"고 통보했다.

이 대표가 이 자리에서 "시내버스가 또 다시 운행이 중단돼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목포시에 대책을 세워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표가 그 동안 "목포시의 재정지원 등에서 불구하고 매년 30억~40억원의 적자가 발생해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힘들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 대표는 또한 총 300억원으로 추정되는 밀린 임금과 퇴직금, 차량할부금과 금융권 부채 등에 대해서는 개인 부동산 등을 처분해 정리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 조만간 시내버스 사업포기를 공식화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의 사업포기 통보에 목포시는 "시내버스가 멈춰서는 안된다"면서 "진의 파악과 함께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최근 이 대표가 6월 이후 시내

버스 운영을 중단하겠다고 구두로 밝혀왔다"면서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 만큼 이 대표에게 연기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애초 오는 7~8월까지로 예정된 시내버스 노선개편과 공영제·준공영제 등 운영방식에 대한 용역도 6월까지 한달가량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만약 시내버스를 시에서 인수 등을 위해서는 협상과 평가, 시의회 보고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나 가능하다"면서 "멈출 경우 회사 측에도 경제적 손실이 막

대한 만큼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다소 느긋한 반응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시내버스 휴업은 법적으로 불가하다. 폐업신고를 해야 한다"면서 "그럴 경우 노선권을 반납하는 등 경제적 손해가 많은 만큼 그만두지는 못할 것이다. 시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경영의 고통은 이해하지만 지역의 원로로서 현명한 결정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목포=장봉선 기자 jbs@kwangju.co.kr

완도 해조류로 만든 화장품 5개국 수출길

미국·스페인·러시아·두바이 등과 기업 3곳, 25만4000달러 계약

완도 해양자원으로 만든 화장품이 미국 등 5개국 수출길에 올랐다. 완도군은 최근 완도를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해양바이오연구센터에서 해양자원 소재 화장품 수출 선적식을 열었다. 완도지역 기업 3개사는 캄보디아, 스페인, 미국, 러시아, 두바이 등 5개국을 대상으로 25만4000달러(3억3600만원) 상당 수출계약을 맺었다. ㈜홍일식품은 다시마와 미역귀로 만든 보습크림을 캄보디아에 수출하고, ㈜그린오션은 다시마로 만든 마스크팩을 스페인에 보낸다. 어업회사법인 ㈜이노플렉스는 수면 크림 외 4종을 미국, 러시아, 두바이에 수출한다. 이 화장품은 미역과 다시마, 잠복가사리 등을 활용해 만들었다. 완도지역 기업 가운데 캄보디아와 스페인 화장품 수출은 이번이 처음이다.



완도 해양자원 화장품을 미국 등 5개국으로 수출하는 지역기업 3곳이 완도를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해양바이오연구센터에서 선적식을 열고 수출을 축하하고 있다. <완도군 제공>

해양바이오연구센터는 산업통상자원부 '스마트 특성화 기반 구축 사업'의 하나로 구축된 전남지역 화장품 기업 육성·발굴 생산기지이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완도의 해양자원을 활용한

화장품이 세계 시장에 진출하게 된 것이 뜻깊다"며 "앞으로도 기업들이 해외 판로를 넓힐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영암군가족센터 '행복한 노년' 맞춤형교육 진행

25일부터 '찾아가는 마실여행'...마을단위 신청

영암군가족센터는 노년기 지원 프로그램 '찾아가는 마실여행'을 운영한다. <사진> 오는 25일 미암면 신기마을을 시작으로 11월까지 이어지는 이 프로그램은 비탈적한 부부관계 및 부모상 정립과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맞춤형 교육이다. 노년기 가족관계 특성의 이해, 인생소환 이야기 나눔 마당, 추억의 놀이 활동 등 다양한 교육과 체험으로 진행된다. 마실여행은 마을회관 등으로 찾아가 이뤄지며 읍면 마을단위로 신청이 가능하다. 교육 참여 시 희망자에게 무지개봉사단이 머리 염색, 네일아트 서비스도 제공한다.



가족센터는 지역사회의 네트워크 강화와 활기찬 노년 관리를 통한 건강한 가정문화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영암=전봉천 기자 jbh@kwangju.co.kr

진도군 '농어민 공익수당' 60만원씩 지급

6479명에게 39억

진도군이 지역 농업인 6479명에게 '농어민 공익수당' 60만원씩을 지급했다. 공익수당은 지역화폐인 진도아리랑상품권으로 지급했다. 이번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액 규모는 39억원이다. 군은 지난 10월부터 14일까지 닷새 동안 읍·면사무소 직원들이 마을회관을 방문해 수당을 지급했다. <사진> 수당을 받지 못한 농어민은 17일부터 오는 11월30일까지 신분증을 가지고 주소지가 있는 지역농협을 찾으면 된다. 해마다 지급되는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업인의 생계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신속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을 통해 본격적인 영농철 경영비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진도아리랑상품권 사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kwangju.co.kr



왼쪽부터 땅끝전망대, 우수영 관광지 울돌목 스카이워크, 두륜미로파크.



<해남군 제공>

해남군, 관광시설 3곳 무료 개방

오늘부터 땅끝전망대 등

해남군이 17일부터 땅끝전망대와 우수영 관광지, 두륜미로파크 등 관광시설 3개소에 대한 입장료와 인조잔디구장 사용료를 무료로 전환한다. 한반도의 시작이자 끝을 의미하는 땅끝전망대, 이순신 장군의 호국정신을 잇는 우수영 관광지, 1만 3000여주의 나무들로 미로를 조성한 두륜미로

파크는 해남을 대표하는 관광명소로 많은 이들이 찾고 있다. 이번 무료 전환은 지난해 민간운영 관광시설과 연계해 실시한 군 직영 관광지 무료입장 사업을 확대한 것이다. 군은 지난해 하반기 민간운영 관광시설 5개소를 이용하면 군 직영 관광시설을 무료로 입장할 수 있도록 운영한 바 있다.

또 우수영관광지, 두륜도립공원 내 인조잔디구장의 경우 최근 2년 동안 구장의 이용객은 증가했지만 조폐상 무료 이용자가 대부분으로, 실수입은 거의 없는 상황으로 무료 이용 전환을 결정했다. 군은 관광시설 무료 개방 및 인조잔디구장 사용료 무료에 대한 조례 개정 절차를 마쳤다. 해남군 관계자는 "무료로 전환되는 관광시설에 대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교육 장소로 활용되도록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키농샤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23년 4월호

2023년 3월 31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정원으로 초대합니다

자연 그리워 정원으로 가는 마음 | 전남·북 지방정원, 민간정원 | 미리 가 본 2023초천만국재정원박람회 '사계절 꽃피는 섬' 신안 섬정원화 사업 | 정원의 매력 만날 수 있는 영화·다큐

향로 요리사이 美味路 "뚝, 뚝 나비아 일어! 봄이야!" **함평천지로 봄 힐링여행**
함평 자연생태공원 | 함평 나비 대축제 | 경기 좋은 '함평천지길' | '주포지구 한옥정원마을'에서 하룻밤 | '녹색식품' 유기농 양배추 | '나비환'의 가정간편식 추어탕 | 연복배기 동화같은 카페 '인무트'

해외문화기행 ⑤ 안데르센의 도시, 코펜하겐 세계인들이 찾는 **인어공주 동상**
임의진 시인의 광주 속살 순례기 '변두리와 언저리' ⑥ 광주 송정역과 판소리꾼 임방울 | 항구네 기차에 올라타고, 설움의 경적이 울렸다
배국남의 대중문화 저널리즘 ⑥ 학폭으로 추락한 연예인과 그 파장은?

에향 초대석

미국사 전문가 전남대 사학과 교수 **김봉중**
"역사는 선택과 기억의 예술"

기획 제14회 광주비엔날레 '물처럼 부드럽고 여러께' 주제로 4월 7일 개막
기획 '모두를 위한 미술관' 공공조형물 ⑥ 제주특별자치도 자연 속에 매력 더하는 조형물들, '예술의 섬' 제주는 아름답다
기획-도시가 역사를 기억하는 법 ⑥ 나치에 저항한 청춘의 도시, 뮌헨 | 이연적 배향 | 광주·골목에 스며든 '자유'의 이름 '백장미단'

세계문화유산 한국의 서원 ⑥ 의(義)를 지킨 유학자 이연적 배향 | 경주 옥산서원
에향이 만난 이 사람 **춘곤, '더 룸' 연출 무용가, 김설진** | KIA '특급 신인' 최완 투수, 윤영철